

제 171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3/11과 애도의 문학

강연자: 심정명 (沈 正明)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심정명 교수의 세미나가 5월 20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3/11과 애도의 문학'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심정명 교수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본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 방사능에 대한 간접적인 죽음도 느끼고 2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일단 3.11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심정명 교수는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3.11사건을 전후의 폐허와 원폭사건 등 국민사적 관점에서 보아 가라타니 고진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희생의 시스템으로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원전 운동을 통해 바뀌는 일본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학에서의 3.11사건에 대한 표현방식이 흥미로운 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것을 기준에 두고 소설을 쓰는 것인가가 된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카미사마"는 3.11사건 이후, "카미사마2011"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3.11사건에 맞추어 바뀌게 되었다. 이 소설은 그 날(3.11) 이후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지진을 통한 새로운 세계도 보여준다. 가와카미 히로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들은 대지진의 깊은 면보다는 일상의 변화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또한 3.11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자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설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 3.11사건에 대해 문학계에서는 '애도'의 주체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고 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작품 중 현재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소설은 이토 세이토의 "상상라디오"인데, 이 소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3.11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폭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애도의 주체를 3.11사건에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쓰시마 유코의 "야마네코 돔"은 일본의 전후사와 방사능사건에 이어진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는 죽음은 누군가를 소거하는 계기가 되지만, 또한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을 나타내며, 중요한 사람이 죽어도 일상을 잘 돌아간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심정명 교수는 3.11사건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기는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본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애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3.11사건 이후의 변화된 일상, 죽음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3.11사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반드시 죽은 사람만이 애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도를 하는 과정에서 큰 역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일상이 없어진 것도 애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맞는 말이다. 없어졌던 일상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한편으로는 나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희생자로서 특권적인 죽음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본 현대사가 변화하는 큰 사건이라는 지표로 놓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3.11사건이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질문: 애도하면 결국 죽음이 핵심인데, 3.11이 특수한 사건인데 문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전후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문학계에서 변화가 있는지

답변: 이 사건은 트라우마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죽음은 항상 있지만, 반드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의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어떤 소설에서는 매일 지진지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등 우리가 흔히 여기는 보통/보편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설도 있다.